

## 조선

조선 시대에는 고려 시대에 융성하였던 불교를 억제하고,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는 숭유억불 정책이 시행되었다. 미술에서는 서민적이고 실용적인 작품이 발달하였으며, 도자(백자), 건축, 가구 등에서 검소하고 소박한 미감을 엿볼 수 있다. 초기에는 고려와 중국의 영향을 혼합한 회화가 많이 제작되었으나, 후기로 갈수록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조선만의 산수와 삶의 모습을 표현한 진경산수화, 풍속화, 민화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. 말기에는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문인화와 추사체가 유행하였다.



**회화** 붉은 매화 줄기를 구부러지게 표현하고, 화려한 색으로 매화꽃과 태점을 찍어 장식성이 돋보인다. 조희룡(1789~1866/조선) 홍매대련(부분/종이에 담채/145×42.2cm/19세기 중엽)



**회화** 안견(1418~1452/조선) 몽유도원도(부분/비단에 수묵 담채/38.7×106.5cm/1447년)



**회화** 단발령에서 본 가을 금강산의 모습을 그렸다. 정선(1676~1759/조선) 풍악내산총람(비단에 채색/100.8×73.8cm/조선 후기)



**회화** 여백을 가득 메운 추사체 글씨와 난이 조화를 이루는 사군자 작품이다. 일반적인 난 표현과 달리 붓의 물기를 적게 하는 갈필법을 사용했으며, 구부러지고 꺾인 난의 모습이 서예의 예서나 초서의 형태와 흡사하다. 김정희(1786~1856/조선) 부작란도(종이에 먹/54.9×30.6cm/조선 말기)



**회화** 김홍도(1745~1806?/조선) 우물가(단원풍속도첩) 부분/종이에 담채/28.1×23.9cm/18세기 후반)